

‘공공미술제도 도입을 위한 예술인협회’(공미협) 발기문(초안)

우리 미술인과 건축가, 디자이너를 비롯한 예술인들은 ‘공공미술제도 도입을 위한 예술인협회’(약칭 공미협, Korean Artists’ Association for the Public Art, KAAPA)를 발기하고 짧게는 공공미술제도의 도입을 위해, 길게는 한국 공공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공미협은 앞으로, 1)획기적인 개혁법안의 개발과 입법화 2) 공공미술 수주, 창작, 설치 전과정의 구조개혁 3)공공미술의 개념 정립 4)각종 사례연구와 실태 조사 5)공공미술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현행 공공미술의 문제를 개혁하고 한국의 공공미술, 나아가 우리 예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선, 일부 비양심적인 미술인들과 건축주, 해당 공무원과 미술 중개상등에 의해 담합과 불법 리베이트, 과대한 수수료, 심지어 탈세와 매수가 성행하여, 번번이 예술계 내외의 지탄을 받아왔다는 것을 직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작가가 비슷한 작품을 양산하여 작품 심사의 편파성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실제 미술장식품의 제작에 드는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고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진 미술장식품은 그것이 놓여지는 공간의 성격, 지역사회의 맥락이나 주민 요구와는 무관한 낯선 조형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부끄러운 현실에 대한 자정 캠페인은 물론, 부정 부패를 차단하고 심의의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건축주가 건축비용의 일부를 미술작품에 의무적으로 할애할만한 문화적 동기가 부족하며, 이에 따른 편익주의적인 작품설치가 관행이 되어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나 예술가 모두 문화적 동기보다는 경제적 이익에만 매달려 있을 때, 문화예술은 실종되고 부정 부패가 만연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공공미술의 의미를 생산하고 그 가치를 예술가와 시민, 전문가와 향수자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확대해 나가 공공미술을 시민이 사랑하고 가꾸는 문화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공공미술이 문화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비상업적 예술활동을 후원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로 일부 화랑과 작가에게 독점되어있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일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미술계 내부의 불공정한 수급구조와 전근대적인 하청제작의 구조를 개선하고, 다수의 작가들이 자유롭게 응모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공미술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응모에서 제작과 설치까지 전 구조를 개혁해나갈 것을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행법에 따라 행해지는 ‘건축물 미술장식’이 그 말에서부터 ‘공공미술’을 제한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합니다. 즉 공공미술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치장을 중시하는 장식적인 목적으로 축소되기보다는, 공공장소에서 예술을 매개로 행해지는 모든 감상, 소통, 기능, 참여 등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예술인 자신이 예술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중시해야하며, 법과 제도 또한 공공미술의 미적인 세련성 못지 않게 공공성을 중시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할 것입니다.

법과 제도의 변화가 모든 것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술제도의 개혁은 미학적 변화를 제약하고, 반영하며, 촉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규범적인 공공영역인 법제도와 가장 자유로운 공공영역인 예술이 상생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공공미술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공미술제도의 도입이 예술의 원대한 가치만큼이나 도시의 환경과 공공장소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미협은 하나의 시민운동이자 문화운동으로서, 이러한 공공미술 제도 도입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나가고자 합니다.

2001년 8월 22일

공공미술제도 도입을 위한 예술인협의회 발기인 일동

발기인

공동대표 김용익, 최태만, 홍승남 외 100인